향토사안내서

온지에 할복장과 아마이

속초문화원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속초문화원 원장 김계남입니다.

속초문화원은 시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와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전파하기 위해 향토사안내서를 발간해왔습니다.

'속초' 지역의 유래부터 시작하여 행정구역과 삶 속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역사와 문화재 그리고 자연 • 인문 환경과 식생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역 모습을 충실히 담아내었습니다.

특히 이번 향토사안내서는 그동안 발간해온 향토사안내서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속초의 사람들을 조명해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특별히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라는 주제로 속초 아바이마을 거주 여성의 직업과 생활사를 엮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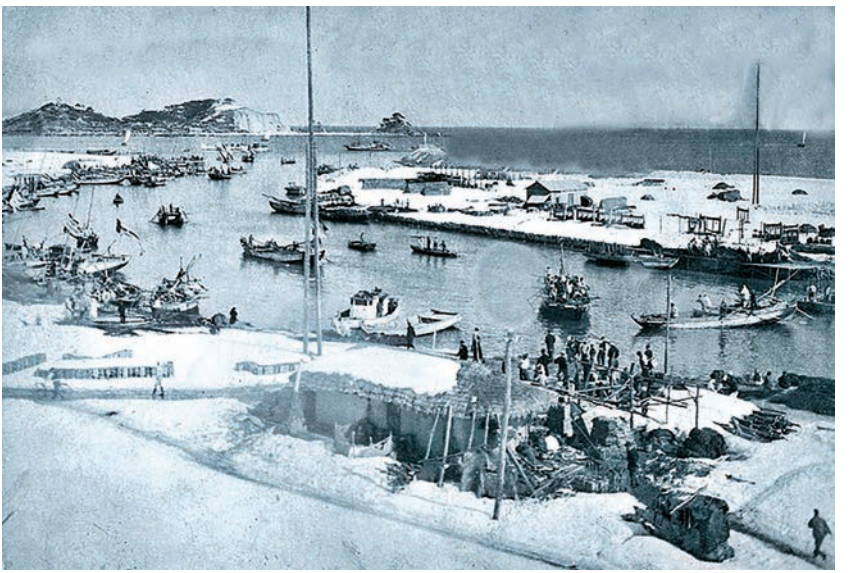
청호동 아바이마을에는 아바이들 뿐 아니라 어려운 시절 자식들을 키워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아마이, 오마니,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 여성들의 힘이 없었다면 속초의 자식들이 이렇듯 자라날 수도, 속초가 이렇듯 발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속초문화원은 속초를 빛내고 성장시킨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내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속초문화원 원장 **김 계 남**



해방전 갯배나루의 겨울

청호동 아바이마을과 오징어할복장 이야기

"오징어가 여러 사람 벌어먹였지"

(안만근님 구술 내용 중)

전쟁이 끝났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 · 25는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향했던 피난민들에게 고향을 잃게 했습니다. 휴전선이 눈 앞이었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실향민들은 곧 통일이 되리라는 희망으로 곧바로 고향에 갈 수 있게 속

초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던 석호 청초호와 바다 사이 모래밭에 움막집을 지었습니다. 빈손으로 눈비 가릴 지붕이라도 있어야 해서 이곳저곳을 가릴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 고향에 갈 테니깐요.

그렇게 나무판자와 종이박스 등을 모아 지은 허술한 집들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동향 사람들끼리 신포마을, 정평마을, 홍원마을, 단천마을, 앵고치마을, 짜고치마을, 신창마을, 이원마을 등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곳을 사람들은 곧 '아바이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징어배가 만선이 되어 들어오면 마을에 '할복할 사람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이 붙곤 했습니다. 당장 하루 먹을 것을 벌어야 하는 실향민들은 배를 타고 오징어를 잡았습니다. 주로 남성들은 배를 타고 오징어를 잡고, 여성들은 오징어, 명태 등을 손질하는 일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징어건조(1950)

70년대 포구앞에서

청초호 갯가에서, 집마당에서 하다가 마을공동오징어할복장이 생겼고, 모여서 오징어를 때기고 손질해 말렸습니다. 오징어를 손질하여 오징어식혜와 오징어순대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마른 오징어 생산 작업은 속초의, 그리고 청호동의 "여러 사람들을 벌어 먹여" 살아가게끔 해준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다음 작업에 불러주지 않을까봐 몸이 쑤시고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한 채 그렇게 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세월을 살아내고, 자식들을 키우고, 집을 고쳐가며 살았습니다. 점점 고향으로 돌아갈 희망은 사라져가고…….

그 사이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바이마을의 풍경은 몰라볼 정도로 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잡히던 오징어와 명태의 어획량이 급격하게 줄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마을공동오징어할복장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 곳은 한동안 버려져 있다가 최근에 와서 속초시와 속초문화재단의 노력으로 속초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곳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살림을 살던 이들의 노고로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80년대 -청호동

2000년대 -청호동

구술 기록을 읽고 있는 네 분의 여성

마른오징어가 나오기까지

① **오징어 때기기(할복)** : 오징어 배를 가르고 내장과 눈을 제거한다.

② **꽂이에 꿰기** : 긴 장대에 오징어를 한 두름씩 꿴다.

③ **덕장에 널기** : 장대를 덕장에 걸어 오징어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④ **눈 튕기기** : 눈의 위치에 대나무쪽을 끼워 넣는다.

⑤ **다리 뜯기** : 건조과정에서 서로 붙어있는 열 개의 다리를 뜯는다.

⑥ **귀 제끼기** : 귀가 몸통에 붙어 있어 귀를 반대방향으로 제껴 놓는다.

⑦ **귀 세우기** : 뉘어 있던 귀를 다시 세워준다.

⑧ **모양잡기(손질하기)** : 평평하게 펴서 모양을 잡는다.

⑨ **장대에 걸기** : 다시 장대에 걸어 넌다.

⑩ **완전 건조**

⑪ **책책이** : 장대에서 오징어를 빼내 착착 쌓아놓고 널빤지로 누른다.

⑫ **축 잡기** : 보기 좋게 10마리씩 묶는다.

⑬ **포장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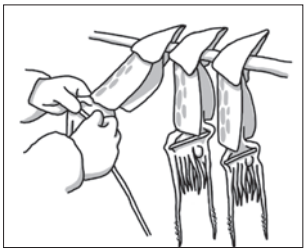


그림 1) 오징어 눈 튕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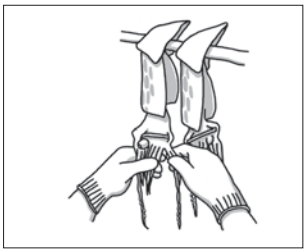


그림 2) 오징어 다리 뜯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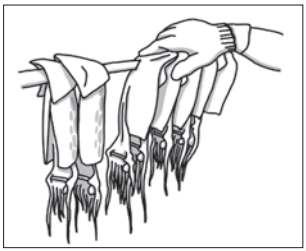


그림 3) 귀 제끼기

오징어 할복장, 청호동

속초 지역 여성들의 직업과 생활사 구술 채록

-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 -

구술 인터뷰는 2024년 속초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향토사안내서 발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속초 청호동 오징어할복장을 중심으로 '속초지역 거주 여성들의 직업과 생활사'에 대한 구술채록사업입니다.

청호동에서 생활하면서 오징어할복 등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꾸려온 네 분의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돈 벌어 일만 원 이상을
내 몸에 투자해 본 역사가 없어요

박 경 훈(72세)

주요약력 1952년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 출생
1971년 남편 석정식과 결혼.
1972년 경상북도 상주에서 첫째 딸 출산
1976년 강원도 태백시 사북에서 둘째 딸 출산
1983년 속초 이주. 명태, 오징어 일 시작
1986년 셋째 아들 출산
2021년 남편 사망
2022년 청호동 경로당 총무일 시작

면 담 자 : 최문경(시민기록가)
면담장소 : 청호동 박경훈 자택
면담일 : 2024년 8월 21일(수) / 9월 20일(금)

어린 나이에 모 심고 벼 베고

어머니, 고향과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십일 남매 중 아홉 번째인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열한 번째 동생과 저밖에 없어요. 위로 오라버니들이 계속 죽으니까 부모님이 제 출생신고를 늦게 하셨어요. 원래 48년생인데 4년 늦게 출생 신고해 52년생이 되었어요. 태어난 곳은 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당리예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학교는 어디를 다니셨어요?

저는 금구초등학교 졸업하고 3년 정도 농사일을 돕다 이월재건중학교를 다녔어요. 재건중학교에서 배운 부기와 주산이 취직해 일할 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농사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초등학교 졸업할 즈음 큰오빠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 집안에서 일할 사람이 없었어요. 집안일을 도왔던 제가 부모님 농사일도 같이한 거죠. 봄이면 모도 심고, 피도 뽑고, 가을이면 벼 베기도 했어요. 그때 진천에는 담배 농사를 많이 했는데 가을에 담배 조리일도 한 이십일 정도 했어요.

담배 조리일은 어떤 일이었나요?

담뱃잎을 따서 찐 후에 건조한 잎을 50g씩 단을 묶는데 이때 단을 잘 묶는 것에 따라 수매할 때 A, B, C 등급이 매겨져요. 단을 잘 묶고 손이 빠른 사람들을 서로 확보하려고 싸움도 일어나고 했지요. 제가 묶는 것들도 꽤 좋은 등급을 받았어요.

말씀 중에 재건중학교[1]라고 하셨는데 일반 중학교와 다른 곳인가요?

---

1) 1961년 5.16 쿠데타 직후 재건국민운동이 벌어졌을 때 만들어진 간이 학교.

마을에서 깨어있는 분들이 사재를 내어 설립한 학교인데 3년 과정이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3년 후부터 다녔는데 이때 주산과 부기를 배웠어요. 제가 주산을 아주 잘 했어요.

첫 월급 받아 고무 쓰레빠 산 게 전부

큰오빠가 제대한 후에도 계속 농사일을 하셨어요?

큰오빠 제대한 후에는 재건중학교 다니면서 진천 광해원에 있는 가발공장에 취직했어요. 7-80명 일하는 큰 공장이었는데 마을로 다니며 일할 사람을 모집했어요. 도시락 싸 가지고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학교 다니고 그랬어요.

가발공장이 첫 취업이신데 그때 받은 급여로 무얼 하셨어요?

그때 급여가 만 몇 백 원이었을 거예요. 올케언니가 집을 나가 아버지가 두 살배기 조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번 돈은 조카 분유, 비오비타, 원기소 등 먹거리와 아기 옷 사는 데 거의 들어갔어요. 첫 월급 받아서 저를 위해 쓴 것은 고무 쓰레빠 한 켤레 산 게 전부예요. 당시에 스카트라고 하는

금성제과 동료들. 앞줄 왼쪽이 박경훈님

주름치마가 유행했는데 같이 일했던 친구들은 월급 받아 사 입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사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돈 벌어 내 몸에 일만 원 이상 투자해 본 역사가 없어요.

재건중학교 졸업 이후에도 계속 가발공장에 다녔어요?

계속 다니다가 열아홉 살 때 조카 키우면서 큰 올케 언니와 대판 싸우고 난 후 그 이튿날로 서울에 왔어요.

미리 계획하고 올라온 것이 아니라서 거처할 곳이 필요했을 텐데요.

금성 제과 모집 광고를 보고 금성 제과에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있었어요. 회사 사장네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여성기숙사로 사용했고, 남성기숙사는 따로 있었어요. 식사를 주지 않아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그때 받은 월급으로는 뭘 하셨어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은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필요한 물품도 사는데 저는 기본 생활비 조금만 남기고 조카 먹고 입히라고 다 엄마께 보내드렸어요.

속초 온 다음 날부터 명태 떼러 가고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금성 제과 다닐 때, 금성 제과에 취직한 남편을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했어요. 결혼하고 바로 첫애를 임신했어요. 2-3개월 때 경상북도 상주 시댁에 가서 살았어요. 저희들 방이 없어 소 여물 주는 데에서 밤에는 전깃불도 없이 촛불 켜고 따로 살았어요. 첫 딸도 시댁에서 낳았어요.

속초 아바이마을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남편이 속초에서 배를 타게 되어서 왔어요.

속초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사 온 다음 날 바로 명태 떼러 갔어요. 옆집 사는 동생이 충청도 사람이었는데 일하는 곳을 안내해 주었어요. 가서 보니 명태를 그물에서 떼어내는 일이었어요. 옷을 너무 얇게 입고 나가서 몸이 오그라들고 살을 에이는 추위에 제가 달력을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3월 28일,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는 거예요.

명태 떼고 임금은 얼마를 받으셨어요?

그때는 돈으로 주지 않고, 명태 한 두름 20마리와 파치 난 것들을 많이 줬어요. 파치 난 것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명태를 집으로 가져오면 상인에게 팔았나요?

거의 모든 집에서 명태를 하니까 돈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받은 명태를 말려서 반찬 해 먹고, 명태 대가리는 푹 고아서 개 먹이로 주고 개를 키워 팔았어요.

개도 키우셨어요?

그때 우리 집 마당에 작은 돼지 움막이 있었는데 이 움막에서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개도 키웠어요. 친정 동생이 계란 5개를 줘서 부화해 생산한 닭이 50마리까지 된 적도 있어요.

늘 잠이 부족한 오징어 일

오징어 할복 일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아들 범호를 낳고 한 달 몸조리하고 나서 다시 일하러 다녔어요. 처음엔 할복을 배우지 않고 할복한 오징어를 철조망에 널어두는 것부터 했어요. 몇 년 뒤에는 대나무에 오징어를 끼웠지요. 그때는 지금처럼 할복장 건물이 없어서 난전에 눈이 오면 가마니를 쓰고 일을 했어요.

1950년대 할복한 오징어를 건조대에 널고 있는 풍경
(속초문화원 제공)

오징어 공동할복장 단꼬

오징어 공동할복장이 생겨서 좀 더 편해지셨어요?

그럼요. 오징어 공동할복장은 여기가 유일해요. 속초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여기 한 곳 밖에 없어요.

오징어 할복 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오징어 할복장 안에 구획이 정해져 있는데 한 구획을 '단꼬'라고 불러요. 덕장 주인들은 사전에 단꼬에서 오징어 일을 할 사람들을 모아요. 보통 한 덕장마다 4-5명 일하는데 덕장 주인들이 작업할 오징어를 사오면 할복장

에서 오징어를 때겨요.[2]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때긴 오징어를 장대에 꿰는데 그 일도 3시간 정도 걸려요. 꿴 장대를 덕장에서 건조해요. 건조하는 시간에는 집으로 돌아가 부족한 잠을 자는데 건조되면 덕장 주인에게 연락이 오는 거죠.

그때부터 손질이 시작되나요?

오징어를 어느 정도 건조하면 손질을 시작해요. 손질은 보통 5~6시간, 길어지면 8시간까지도 해요. 먼저 장대에서 약간 마른 오징어 눈을 튕겨요.[3] 다시 건조해 몸통에 오징어가 붙지 않도록 반대 방향으로 오징어 귀를 제끼고, 또 건조해 반대 방향으로 제껴진 오징어 귀를 세우고 다시 건조해요. 다 마르면 책책이라고 부르는, 울퉁불퉁한 오징어를 잘 펴지도록 장대에서 오징어를 빼내 기다란 널빤지 위에 착착 쌓아요.

손질 과정이 꽤 많아요. 그러면 끝나나요?

오징어 일에 열두 번 정도 손이 가요. 책책이 손질을 마치면 완전히 말린 후에 오징어를 펴 모양을 잡아요. 20마리씩 축 잡아 놓아야 마무리 되요. 요즈음엔 오징어가 귀하고 값이 비싸 10마리씩 축을 잡고 있어요. 오징어 일은 생물을 다루는 일이라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늦춰질수록 오징어 상태가 달라지니까요.

오징어가 건조되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합하면 거의 하루 종일이겠어요. 잠은 언제 주무세요?

새벽에 나갔다 건조할 때 잠시 눈 붙이고 다시 나가 손질하니까 잠이 늘 부족했어요. 손질하면서 장대를 마주 잡은 두 사람이 서로 졸기도 했어요.(웃음)

---

2) 가르다의 사투리

3) 오징어 눈을 떼어낸 자리에 대나무 가지를 끼워 넣는 작업

하루에 보통 얼마나 하셔요?

오징어 한 두름이 20마리예요. 보통 백 두름을 하는데 한 바리라고 해요. 그럼 2,000마리를 하는 거죠.

엄청난 양이네요. 오징어 일을 해서 많이 버셨어요?

할복비는 처음엔 일당 200원이었는데 지금은 팔만 원을 받아요. 꿰는 것도 일당 팔만 원이에요. 손질비는 두름으로 계산해서 예전엔 20마리 한 두름에 칠십 원이었는데 지금은 팔백 원이에요. 백 두름 하면 팔만 원 벌어요. 손질은 두름으로 하기 때문에 양에 따라 임금 편차가 심해요. 삼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사만 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할복이나 손질하는 데 양이 많아 시간이 더 걸리면 덕장 주인들이 더 계산해 주기도 했어요. 오징어 일은 있을 때는 꽤 많이 버는데 매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꾸준하지는 않았지요.

오징어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칼이 유일해요. 저는 오징어 손질 일을 하는 사람이라 오징어 일할 때는 칼을 쓰지 않고 주로 명태 때길 때 칼을 사용했어요. 명태를 하도 많이 때겨 처음에 25cm 내외 되는 칼이 10cm 안되게 닳아요. 지금까지 사용한 칼이 20개 이상 되어요.

박경훈님이 명태 할복해서 닳은 칼

할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일하는데 다툼이나 갈등이 있지 않았나요?

남 험담이나 남의 말 할 새가 없어요. 우리들이 우스갯소리로 바빠 죽을 새도 없다고 했죠. 먹을 게 나오면 서로 빨리 와서 빨리 먹고 빨리 일하자 이랬어요. 내 돈 벌자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꾀부리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

어요.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덕장 주인들이 제공해요. 집에서 직접 밥을 해오는 주인들도 있고, 음식점에서 배달시키는 주인들도 있고 그랬어요. 주로는 집밥을 해 줬죠.

오징어 일이 줄어든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15년쯤 전부터 국내에서 잡히는 양이 적어져서 해외에서 냉동 오징어를 수입해 왔어요.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요.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건 한 5년 전부터인 것 같아요. 덕장에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오는데 1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정도 있어요.

일과 함께 살아온 세월, 몸 병들다

오징어 손질 말고 다른 일은 안 하셨어요?

오징어 손질하다 아들도 크고 일도 힘들고 해서 고속버스터미널에 입사해서 청소 일을 13년 정도 했어요. 3교대 근무였는데 월급을 칠십사만 원 받았어요. 제가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야간 조에 배당되

박경훈님이 고물에서 분리한 구리, 철 등

면 새벽에 일 마치고 리어카를 끌고 아바이마을 끝까지 다니면서 고물을 수거했어요. 고물 수거 일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직장을 다녔는데 왜 힘든 고물 수거까지 하셨어요?

두 딸 결혼과 범호 공부시키느라고 계속 돈이 들어갔어요. 그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자는 시간을 쪼개서 고물 수거를 한 거죠.

고물 수거를 해 오면 어떻게 해서 넘기는 거예요?

고물 수거한 것에서 돈이 되는 구리, 알루미늄, 철 등을 분리해 놓으면 고물 수거하는 사람이 와요. 우리 집 부엌 뒷공간에 가면 고물 수거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고물 거래는 정해진 곳이 있나요?

강릉에서 온 사람하고만 했어요. 뭐 더 쳐준다 해도 거기서 거기예요. 나는 한번 정한 사람하고 끝까지 가요. 내 성격이 그래요.

일해 온 세월만큼 몸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어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경로당에 수지침 봉사하러 오는 선생님이 진맥을 짚더니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라고 하셨어요. 속초에 와서 10년쯤 되었을 때 밤에 잠을 자다 깨었는데 온 몸에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밤을 겨우 견디고 다음 날 병원엘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물도 마시기 어렵고, 커피만 먹었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내 재산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정리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다시 병원엘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강릉에 있는 한의원엘 가보라고 해서 그 의원에서 12일 입원했어요.

그때 입원하고 몸은 회복되셨어요?

네. 얼추 몸도 회복된 것 같아서 퇴원했어요. 범호가 어리니 더 입원해

박경훈님의 두 손

있을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2013년도 8월 2일 자다가 새벽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병원에서 수술하고 두 달인가 입원했어요. 디스크 수술은 몇 번을 더 했어요. 그러니 지금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죠.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던 삶

첫 딸을 시집에서 낳으셨다고 했는데 출산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남편이 팔 남매의 둘째인데 당시 시댁 식구가 일꾼들까지 열세 명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서 출산이 다가올 때까지 열세 명 빨래며 밥이며 식모처럼 일만 했어요. 게다가 시댁이 정육점을 했는데 돼지를 도축하면 물 끓이고 털 뽑는 정리 일을 내가 도맡아 했어요. 큰딸 출산도 가마니 깔고 저 혼자 했어요. 탯줄은 늦게 들어온 남편이 가위를 못 찾아 낫으로 잘랐어요.

몸조리는 하셨나요?

몸조리라는 게 뭐 있나요? 그때가 12월이었어요. 겨울에 무가 많이 나잖아요. 시어머니가 경상도식인지 겨울 무 속을 숟가락으로 긁어내어 들기름에 볶아서 뭇국을 푹 끓여줘서 1주일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꿀맛이었어요. 그 뒤에 자연산 미역 장각 하나, 큰 솥에 끓여 먹고 끝이에요. 미역국 먹는 날부터 다시 식구들 밥하고 일하러 다녔어요.

거의 모든 시간을 일하면서 보내셨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가정 사정이 있어서 어려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냈어요. 두 딸은 열일곱, 열세 살에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제 돌봄을 거의 받지 못 했지요. 딸들에게는 미안한 게 많아요. 딸들은 밥 굶기지 않으려고 일만 했다면 아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이들이 한창 클 때는 간식도 해 주셨어요?

세 끼 식사 외에도 감자를 두툼하게 썰어 말려서 꾸덕해지면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기름에 튀겨 설탕을 뿌려 만들어주곤 했어요. 먹성들이 워낙 좋았어요. 뭘 해 놓든 금방 비우고 다 먹었어요.

아들 초등학교 운동회

혹시 아이들에게 특별히 해주신 게 있으세요?

해준 것보다는 오징어 일은 양에 따라 돈을 받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도 일을 시켰는데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

았어요. 내 고생을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넘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소풍 때는 같이 가셨어요?

딸들은 떨어져 있어서 못 갔고, 아들 범호는 소풍이나 운동회에 꼭 시간을 내어 함께 했어요. 범호 6학년 때 제가 어머니 회장을 했어요. 운동회 때 보면 마을 주민들로 운동장을 꽉 채웠고 동네 잔치였어요.

엄마랑 떨어져 살았는데 두 딸들이 서운해 하지 않았어요?

딸들이 엄마 없이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어린 시절에 내 손을 떠나 있었던 딸들이라 아직도 맺힌 것들이 있죠. 그래도 딸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조금씩 엄마 삶에 대해 이해하는 것 같아요.

자식 향한 마음이 나누는 삶으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셨어요?

제가 경기도 오산의 대성모방에 취직했어요. 대성 모방에서 짜깁기를 했는데 재건중학교에서 배운 주산과 부기 때문에 반장까지 할 수 있었어요. 반장이 원단을 배분하고 월급을 계산해 월급봉투를 나눠주기 때문에 명절 같은 때에는 선물이 가득 쌓였어요. 주말에는 오산 컨트리클럽에서 캐디로도 3년 정도 일했어요. 돈도 제법 모이고 동

대성모방 동료들. 맨 왼쪽이 박경훈님

료들과 즐겁게 일하며 제 인생 가장 빛나는 호시절이었어요.

지금 집은 언제 장만하셨어요?

아들 범호 돌잔치 앞두고 마련했어요. 세를 살다가 주인 할머니에게 막걸리 사 들고 가서 담판을 지었어요. 집을 저에게 팔라고요. 그 분이 제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막걸리를 얻어먹고 집을 싸게 파셨어요. 오징어 일하고 지갑에 25만 원 있었는데 계약금으로 걸고 대성 모방 다니면서 모아둔 돈 250만 원을 주었어요.

아바이마을에 정착하면서 마을 주민들과는 잘 지내셨어요?

이북피난민들이 많이 살기는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없었어요. 결국 마음 통하는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니까요. 저는 명태, 오징어 일하면서 이웃들과는 잘 지냈어요. 건조인 협회에서 봄, 가을로 차량 2, 3대 대절해서 관광도 다녀오고 했어요. 할복장에서는 가축 잡아 술과 함께 서로 힘든 일에서 잠시 벗어나 즐겁게 놀기도 했어요.

지금 마을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있나요?

경로당 총무일을 2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30년 전부터 경로당에 월 2만 원씩 후원한다 생각하고 국수 세관이나 소주 됫병을 사다 드리곤 했어요.

경로당에 오랫동안 후원하셨네요. 다른 곳도 후원하신 데가 있으신가요?

제가 딸들과 10년 떨어져 살았잖아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월드비전에서 굶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애들도 자라면 저렇게 자랐을 텐데 싶어서 그때부터 10년 동안 월드비전하고 해비타트에 월 일만 원씩 후원했어요. 한 번도 거르지 않았어요. 제 후원으로 결연을 맺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간호사가 된 아이도 있고, 아직 대학생인 아이도 있어요. 가끔 연락도 했지요.

지금까지도 후원을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은 아들한테 사정이 생겨 손녀딸을 제가 키우고 있어요. 손녀딸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고정적으로 발생해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니 고민 끝에 10년 후원을 중단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손녀딸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손녀딸은 하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선물이에요.

경로당 총무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을까요?

노인분들이 너무 집에만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밖으로 나오셔서 어울려야 우울감도 덜하고 건강할 수 있어요. 경로당에서 1년에 한 번 관광을 가는데 그런 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자신의 부모님만 생각하지 말고 마을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여기고 자주 살펴드렸으면 해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마을 일하는 박경훈님

어머니에게 일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요?

내가 살기 위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 우리 손녀딸 잘 키우기 위한 책임감이에요. 아바이마을에 살면서 범호 낳고 애들 아버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두 딸과 범호 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작년에 손녀딸이 오고 나서는 손녀딸만 생각하며 살아요.

선물처럼 어머니께 온 손녀딸과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면담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빚 갚으려고 오징어 일을 시작하다

유 옥 춘(72세)

주요약력 1952년 인제군 기린면에서 출생
1967년 고성군 천진리로 이사
1974년 모친 사망
1976년 임병환과 결혼하여 속초에 정착(영랑동)
1977년 아들 출산
1979년 조양동 새마을로 이사. 큰딸 출산
1981년 막내딸 출산
1988년 청호동 현 자택으로 이사. 오징어 일 시작

면 담 자 : 김현미(시민기록가)
면담장소 : 청호동 유옥춘 자택
면담일 : 2024년 8월 22일(목) / 9월 25일(수)

산골에서 바닷가로 이사오다

어머니,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인제군 기린면 하남리에서 태어났어요. 위로 언니 둘과 4살 아래 남동생이 있는데 큰언니와 작은언니는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큰언니랑 20살 차이 나거든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는데 가을이면 차를 마당에 대고 곡식을 팔 만큼 동네에서 손가락 꼽을 정도로 잘 살았어요. 그러다 제가 16살에 고성군 천진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산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이 바닷가 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나요?

작은언니 형부가 사업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뒷돈 대주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집이랑 재산이 다 넘어가고 쫄딱 망해서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사는 게 녹녹치 않았겠어요. 천진에서는 어떻게 생활하셨어요?

부모님은 여기서 생선 떼어다가 영[1] 너머에 가서 팔기도 하고 미역을 얻어다 가마니에 널어 말려서는 그걸 인제에 가져다 팔기도 했어요. 부모님이 장사 다니시니 저는 주로 집안일 하고 산에 땔감 나무하러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나무를 때서 밥을 해 먹었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가끔 앵미리(양미리) 엮는 것 같은 일거리나 사방공사[2] 가 있으면 그런 일 다녔어요.

천진도 바닷가라 그때 명태가 많이 났을 땐데 명태 때기는(할복) 일은 안 하셨어요?

명태 때기는 일은 안 했어요. 엄마가 무재주 상팔자라고 아야진[3] 사람 때기는 데 그거 배우면 평생 한다고 아예 손도 못 대게 하셨어요.

---

1) 길이 나 있어서 넘어 다닐 수 있는 높은 산의 고개. 속초고성지역에서 '영 너머'는 태백산맥 서쪽 지역을 말한다.

2) 각종 재해나 자연 노후로 인해 물이나 흙, 자갈 등이 쏟아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복구하는 공사. 유옥춘님은 민둥산에 나무 심는 일을 하셨다고 한다.

3)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천진 옆의 규모 있는 항구

조양동 새마을주택단지 조성 모습. 유옥춘님은 78년도에 이사왔다.

결혼하면서 속초에 정착하다

그럼 결혼하시면서 속초로 오신 거예요?

네. 76년도에 결혼해서 처음엔 영랑동에 세를 얻어 살았어요. 거기서 아들을 낳고 1년 살다 물이 안 나와서 동명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세로 1년 살다가 세를 더 안 준다고 해서 돈을 좀 보태서 조양동 새마을[4]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조양동에서는 딸 둘을 낳고 거기서 9년 살다가 큰딸이 2학년, 막내딸이 7살 때 여기 청호동으로 내려왔죠.

남편분이 속초 사람이었나 봐요?

우리 아저씨 고향은 원래 양양 구교리 사람입니다. 시아버지가 6.25전쟁 때 붙잡혀 들어가고 시어머니가 재혼을 하셔서 여기 영랑동 와서 살고 있었죠.

---

4) 조양동 새마을주택은 1968년 동해안을 강타한 대형 해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조양동 4~7통에 조성된 440규모의 재해주택단지를 말한다.

남편분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소방관이었어요.

소방관이면 생계 걱정은 없으셨겠어요.

그전에는 택시 운전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소방관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엔 택시보다도 월급이 적었어요.

유옥춘님의 결혼사진

시도 때도 없이 일을 나가 잠을 못 자고

어머니는 언제 어떻게 오징어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37살 때 여기 청호동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애들 키우고 따로 일은 안 했는데 여기 청호동으로 이사 오면서 이 집을 사느라고 빚을 졌어요. 빚을 지니까 생활이 빡빡하고 어려웠어요. 그 빚을 갚으려고 일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이 주변이 다 오징어 건포를 했어요. 오징어 말리는 일을 건포라고 하는데 집집마다 마당이나 공터에다 건포 안 하는 집이 없었어요.

오징어 할복을 하셨어요?

할복도 조금 했는데요. 할복은 칼 들고 하는 거라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늦게 배우려니 잘 못 해서 오징어 끼우고 손질하는 일만 하게 됐어요.

오징어 손질은 어떻게 하는 일인가요?

먼저 할복한 이까(오징어의 일본말)를 말리는데 긴 쇠장대에 끼워서 쭉 널어요. 오징어 눈 튕기고 어느 정도 마르면 오징어 엎어져 있는 귀도 제끼고 붙어 있는 다리도 떼요. 눈 튕기는 건 오징어 양쪽 눈 있던 자리를 벌려 대나무쪽을 끼우는 일을 말하구요. 오징어 다리가 가지런하게 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마르면서 붙어 있던 열 개의 다리를 서로 떼어야 하고 귀를 안 제끼면 잘 안 마르고 나중에 뻘개져서 못쓰게 됩니다. 잘 마르라고 귀를 반대로 제껴놓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말립니다. 한마디로 눈 튕기고 다리 뜯고 귀 제끼는 걸 오징어 손질한다고 해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무엇보다도 잠을 못 자서 엄청 힘들었어요. 오징어 손질하러 밤 12시에도 나가고 새벽 1시에도 나갔어요. 밤에는 나가서 손질하고 날이 하얗게 새면 새벽에 생물이 들어오고 그럼 그걸 또 널었어요. 예전에는 가시철망에다 널었는데 여름에는 다리를 뜯을 수가 없어서 나무젓가락으로 다리를 엮어서 널었어요. 나중에는 창고에 들여놓고 불이까를 했지만요.

창고안 오징어덕장

오징어 손질 일이란 게 시도 때도 없이 해야 하는 건가요? 하루 안에 끝나지 않나 봐요?

오징어가 마르면 그때그때 바로 손질해야되니까요. 새벽에 생물이 오면 때겨서 널어 빨리 잘 마르도록 불이까를 해요. 오징어가 어느 정도 마르면 그때가 밤 12시든 새벽 1시든 오징어 상태에 맞춰서 나가서 손질을 해야합니다. 다음날에 손질 끝난 오징어는 다시 널어 말리면서 새벽에 들어온 생물을 다시 또 널고 손질하고 매일 그런 반복이지요. 그러니 잠을 거의 못 잤지요.

불이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오징어를 마당에 장대를 세워 줄을 쳐서 널어 말렸는데, 이제 창고에다 오징어를 쭉 걸어놓고 연탄불을 피우고 선풍기를 돌려서 말리는 일을 불이까라고 해요. 날씨에 상관없이 오징어를 빨리 말리기 위해 했던 방식입니다.

일을 해주는 집이 정해져 있었나요?

다 정해져 있었어요. 계약서를 쓴 건 아니지만 구정 쇠고 일을 시작하면 다음 구정 전까지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다른 집에 가려면 구정까지 일을 마치고 나서 다른 집에 갈 수 있어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 서로 계약이 된 셈이니 1년 동안은 그 집일을 책임지는 거죠.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 같이 일하나요?

생물하는 건 2명이나 3명 있었고 손질하는 사람은 생물보다 더 있어야 해요. 집집마다 다 하니까 일손이 부족해서 저처럼 생물하는 사람이 오징어 손질을 하기도 했어요.

처음 일한 집에서는 얼마 동안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일한 집에서 12년 정도 일했어요. 처음 일할 때 일을 배우면서 하려니까 일을 못 해서 엄청 눈총도 받고 힘들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야 숙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하게 되었어요.

오징어 손질하면서 어떤 일이 어려웠어요?

날씨가 나쁘면 생물 일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면 그걸 다 끌어다 창고에 널어야되니까요. 또 겨울엔 밖에서 일하니까 춥고 손이 시려서 힘들고요.

오징어는 주로 여름에 나지 않았나요?

오징어가 안 날 땐 냉동오징어를 해서 365일 일을 했어요.

노임으로 하루에 얼마 받으셨어요?

오징어 일은 하루에 얼마씩이 아니라 일한 만큼 받아요. 너는 사람이고 손질하는 사람이고 다 오징어 한 두름에 얼마씩으로 정해요. 제가 일할 때 처음에는 오징어 너는 게 한 두름에 70원이었고 널고 손질까지 다 하면 180원 받았어요. 1년마다 한 번 조금씩 오르다가 그게 몇 년은 갔어요. 울릉도 이까라고 대나무 끼워 너는 걸 할 때는 제법 올라서 220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둘이서 두 바리를 했으면 한 바리가 백 두름이니 한 사람당 2만 2천 원을 받는 거죠.

둘이서 같이 일하시나요?

둘이 한 조가 돼서 같이 끼우기도 하고 같이 널거나 손질하는 것도 같이 하고 겨울에는 잠도 오니까 나란히 서서 일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지요.

네가 벌면 얼마나 버냐

이사 오면서 진 빚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는데 빚은 언제 다 갚으셨어요?

한 4~5년 만에 다 갚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돈이 또 그리로 들어갔지요.

돈은 많이 버셨어요?

벌기는 많이 벌었어요. 우리는 월급으로 받는 게 아니니 열흘에 한 번도 받고 보름에 한 번도 받고 일해주는 집 사정에 따라서 주는 대로 받는데 그 금액을 합하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애들 학원비 주고 반찬 사고하면서 생활비로 쓰니까 들어오는 대로 나가지요. 아마 남편 월급만큼은 벌었을 거예요.

일하면서 돈을 남편만큼 벌었잖아요. 일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부부 사이에 변화가 생겼나요? 내 주장을 한다던가 하는 이런 변화요.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돈 번다고 더 말은 못 해요. "돈 번다고 유세 떠냐"고 하기도 하고 남편 월급은 딱딱 얼마씩 들어 오는데 나는 쓰다 보면 없어지고 얼마를 버는지 남자들은 모르니까 "니가 벌면 얼마나 버냐"고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해부턴가 봄에 오징어가 안 나서 일을 못 하고 가을에만 일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한 20년 일하고부터였을 거예요. 내가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이 용돈 달라고 하면 월급에서 줘야 하는데 예전에는 3만 원 주던 걸 2만 원 밖에 못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얼마나 버냐고 했는데 요새는 돈 타기가 힘들더라"고 하더라구요.

요즘도 오징어일 계속하세요?

요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또 우리도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저녁 6시에 일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진 않으세요?

매일 하면 힘들지만 요즘은 옛날처럼 손질을 하지 않고 기계로 다돼 있어요. 예전에는 다 밖에 널며 일했는데 이제는 안에서 다 하니까 일하러 가면 한 번에 끝내고 옵니다. 옛날보다 일이 쉬워요.

지금 이 동네에 덕장이 몇 개나 있어요?

이 근방에 다섯 군데가 있고 농공단지에 하나 있는 것까지 하면 여섯 개

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50집이 넘었어요.

여기는 오징어도 들어오고 명태도 들어오고 하나요?

다른 곳은 모르는데 내가 일하는 덕장은 오징어는 여기서 하고 명태는 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작업해요.

요즘엔 오징어 손질로 하루에 얼마씩 받으시나요?

한 두름에 1700원이나 1800원 받아요. 하루에 몇 바리를 할지는 주인집에서 내놓는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세 바리나 네 바리 정도 하면 하루에 몇십만 원은 벌어요. 오징어 끼는 일도 3시간 반 네 시간 일하면 8만 원 받으니까요.

오늘 저녁 6시에 가서 일하면 몇 시에 끝나고 얼마 받으시나요?

새벽 2시 정도에 끝나는데 한 20만 원 받아요.

연금보다 훨씬 많겠는데요?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있다 보니 많다고 할 수 없지요. 예전에 오징어가 많이 날 때는 매일 했어요. 지금은 오징어가 그렇게 안 나니까 어쩌다 한 번 버는 것이죠.

청호동 사시면서 이 동네만의 특징이나 분위기 이런 게 있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억양이 쎄서(세서) 말하는 게 싸우는 것 같아요. 평상시 안 그러는데 특히 할복장에 가면 분위기가 엄청 살벌해요. 물 한 잔 안 나눠 먹어요.

왜요? 일한 대로 돈을 받으니까 경쟁이 심한가요?

그것도 있지만 한 단꼬[5]에 2명이 앉아서 일하다 보면 상대방의 일 속도

5) 오징어할복장에 생물오징어를 쏟아놓는 구역.

가 좀 늦으면 다른 집 일을 가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상대방 때문에 일이 빨리 안 끝나니까 눈총을 주는 거죠. 여기 끝내고 다른 집 일을 가서 돈을 두 배 벌 수 있는 걸 못 버니까 분위기가 많이 살벌해지는 것이죠. 거길 또 나오면 그렇진 않은데 말이죠.

오징어 일하는 사람들과 계모임도 같이 하셨어요?

오징어 일하는 사람들과 계모임을 같이 한 건 아니었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같이 하기도 했어요.

계모임에서 유옥춘님 부부

애들 셋 다 공부시키고

남편은 어떻게 소방관이 되셨어요?

택시 운전을 해서 운전을 특기로 들어가셨어요.

그 시절에 남편분은 운전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커다란 나무 같은 거 싣고 다니는 트럭 있어요. 그 트럭 운전수의 조수로

두 딸의 소풍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면허를 따셨대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위험한 직업인데 그래도 오래 하셨나 봐요?

거기서 30년 정도 하시고 정년퇴직하셨어요.

남편 자랑 좀 해주세요. 살면서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어요.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가며 살게 됐어요. 술도 많이 마시긴 했는데 주사는 없고 대신 아빠가 술 마시면 애들이 좋아했어요. 술 드시고 오는 날엔 사는 게 힘들 때인데도 수박 같은 거 들고 오고 또 애들 어렸을 때는 어디 교육받고 오면서 점심은 굶어놓고 애들 로봇장난감 이런 거 사 들고 들어왔거든요. 아이들이 아빠 들어올 때면 아버지 손부터 보곤 했어요.

자식한테 잘해주셨나 봐요. 자녀는 몇이세요?

제일 큰애가 아들이고 딸 둘이 있어요. 모두 두 살 터울이다 보니 아들이

군대 갔다 복학했을 때 딸 둘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셋을 한꺼번에 대학 보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손으로 양말짝 하나 못 사 신었어요. 그래도 남편 회사에 학자금 대출이 있어서 겨우겨우 어떻게 넘겼어요.

아이들 클 때 간식이나 군것질거리 많이 만들어주셨어요?

돈이 없으니까 새마을에 있을 땐 매일 찐빵 쪄주고 계란 사서 이런 거 해줬지요. 밀가루 사다가 이렇게 아랫목에다 덮어놨다가 팥 삶아서 호떡도 만들어주고.

애들 소풍이나 운동회도 다녀오셨어요?

힘들어도 막 일하다가 점심을 싸가지고 갔는데 어떤 땐 바빠서 늦어져서 애들이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에 가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우리 애들만 셋이서 엄마 오나 하고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또 어떨 땐 일하다가 늦어가지고 점심 싸서 차 타고 부랴부랴 가고 그랬어요.

자식들이 속초에 살지 않고 다 외지에 나가 있는데 서운하지 않으세요?

거기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서운한 건 없는데 우리 아저씨가 아플 때 조금 답답하지요.

거실에 연필로 그린 얼굴그림이 액자로 걸려있던데 그분은 누구세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를 그린 그림인데 3살 때 아버지가 잡혀가셨으니 얼굴도 모르고 아버지 사진도 없어서 친척한테 아버님 얼굴 모습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남편의 아버지 몽타쥬

남편분이 한이 많으시겠어요. 혹시 남북이산가족찾기 할 때 신청하셨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하냐고 물어보니 6.25 전쟁 때 염병이 돌았는데 피난을 가야하는데 염병이 걸리셨나 봐요. 애들 큰아버지는 뒤에 걸리고 보따리 안고 가는데 양양 남대천 다리를 건너갈 때 시아버지가 '난 아파서 도저히 못가겠다'하고 양양으로 돌아오셨다가 잡혀들어갔다고 해요.

관광은 언제 처음 가보셨어요?

새마을에서 살 때 관광계를 모아가지고 부부동반으로 다녀왔어요. 처음에 국내를 한 바퀴 돌고 다음번에는 제주도를 다녀온 걸로 기억해요.

부녀회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사패를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감사패를 받으셨어요?

예전에도 부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는데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 봉사하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도 되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봉사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회장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받은 겁니다.

부녀회장으로 일해 받은 감사패

부녀회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나요? 부녀회 소개 좀 해주세요.

부녀회는 동마다 하나씩 8개가 있는데 속초시 전체로 시지회가 있어요. 요새 부녀회에서는 탄소중립에 관한 일을 많이 하는데 아이스팩 모아다가 씻어서 무료로 나눠주고 생수병도 모아서 지회에 보내주면 돈을 받아 독거노인들 반찬봉사도 하구요.

부녀회에서는 주로 봉사를 많이 하네요. 부녀회에서 관광 같은 것도 가나요?

부녀회에서 관광은 간 적이 없어요. 대신 월례회 모임을 해요. 예를 들어 2만 원씩 걷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만원은 먹고 남은 돈은 모아놨다가 반찬 봉사할 때 모자라면 보태고 회원 자녀 결혼식이 있다거나 장례식이 있다고 하면 경조사비로 나가고 어딜 가면 회비도 내야 하구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가을 되면 새우젓 판매도 하고 봄에는 시지회에서 화장지도 받아서 팔면 시지회에서 얼마 주는데 그걸 모아놨다가 씁니다.

가장 기쁜 일은 내 집 마련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가장 보람있고 기쁜 일은 어떤 일이었까요?

제일 좋았던 일은 하다못해 오막살이라도 처음으로 내 집 마련했을 때지요. 조양동 새마을로 이사갔을 때가 제일 기뻤던 일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전세로 다니면서 돈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셨어요?

그때 낙찰계를 125만 원짜리를 들어서 조금 보태 샀어요. 처음엔 우리가 재산이 없다고 낙찰계를 안 들어줘서 아는 분이 보증을 서주셔서 겨우 들어갔어요.

낙찰계는 어떤 계인가요?

예를 들어 20명이 5만 원씩 내면 한 달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급한 사람들이 여럿이면 돈을 타고 싶으니까 자기가 공제할 금액을 써서 내는데 가장 큰 공제금액을 쓴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거예요. 내가 20만 원 썼는데 저 사람이 30만 원 썼다면 30만 원 쓴 사람이 3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가져가고 그 30만 원은 19명이 나눠 갖는 거지요. 대신 맨 나중에 받는 사람은 다 타지요.

당시에 은행도 있었을 텐데 왜 낙찰계를 보증을 세워가면서 들어가신 거예요?

결혼했을 때 돈은 없고 20대라 은행은 잘 모르는 데 낙찰계를 들으면 낙찰돼서 가져가고 남는 돈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돈이 급할 때는 그게 남의 돈 이자 무는 것보다 낫거든요. 그때 이자가 오부 육부[6] 그랬으니까요. 그거 몇 번 하고 은행에 적금도 들었어요.

낙찰계를 들 때 집을 사려고 계획을 세워서 들어가신 거예요?

집 살 생각은 안 하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이걸 타서 집을 사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를 살다 보니 내 집 없는 설움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야겠다 맘먹은 거지요.

당시에 새마을 집은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처음에 그 집을 220만 원 달라고 하는 걸 깎아서 186만 원에 샀어요. 이사하고 다음 날 아침이 되니까 이곳이 싹 다 헐리고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서로 내 집 사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는 계약금만 주고 잔금을 아직 안 줬는데 집주인이 강릉사람이라 연락도 안 되고 난감했지요. 일주일쯤 뒤에 집주인을 만나서 이 집이 헐린다는데 우리는 계약금만큼만 살고 이 집은 못 사겠다고 했어요. 6개월쯤 뒤에 집주인이 이 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고 하니 사라고 권유해서 그때 150만 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아파트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집은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구조가 기다란데 반 잘라서 하나는 큰방이고 나머지 반은 작은 방 하나랑 부엌이 있었어요. 땅이 앞으로 조금 있는데 집집마다 평수가 달라서 20 몇 평도 있고 30평도 있고 그랬어요. 처음엔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속초시 소유여서 3개월에 얼마씩 내다가 9년 동안 살면서 땅도 사고 등기를 냈어요.

---

6) 오부 육부 이자는 월 기준이므로 오부는 연 60%, 육부는 연 72%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기쁜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남편이 진급했을 때요. 소방소장으로 진급하고 나서 월급도 늘고 나도 돈 벌고 하니까 그때 살림이 펴지고 애들도 대학가고 하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 58세에 정년퇴직했는데 퇴임식 하면서 눈물이 다 나더라구요.

고생스러웠지만 일해서 얻는 보람

사시는 동안 가장 서글프고 힘든 때는 언제였어요?

우리가 여기로 오고 내가 한참 오징어 일을 할 때인데 시어머니가 풍에 걸려가지고 집에 와 계셨어요. 한 1~2년 계시다가 좀 나으면 가셨다가 또 아프시면 오시곤 했어요. 오징어 일하면서 잠을 못 자서 힘든 때인데 제가 어머니 한약을 100일을 달여드렸어요.

잠도 못 자면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고생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니까짓 게 돈 벌면 얼마나 버냐"고 갈구셨어요. 낮에 시간이 조금 있어서 잠 좀 자려고 방안에 누워있으면 밖에서 나무 빗자루로 쓰는 게 아니라 탕탕탕 치면서 잠잔다고 그렇게 성질을 부리셨어요. 아직 일하러 가려면 30분 더 있어도 되는데 미리 나와버려요. 그래야 속이라도 편하니까요.

집 없는 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들을 겪으셨어요?

동명동에서 전세 살 때 친정 언니가 맛있는 고구마가 있다니까 옆에서 씨 한다고 가져다 달라고 해서 갖고 왔어요. 그때 주인집에서 텃고사를 지냈는지 어떤지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검댕이들이 다 모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전기제품이 보온밥솥하고 텔레비전하고 딱 두 개 있었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돈도 자기네보다 더 많이 받아갔어요. 또 한 번은 명절에 우리 시누이가 대문에 들어선 것도 아니고 뒷골목이 바깥 길인데 거기 서서 "언니야 엄마가 밥하지 말고 올라와

서 밥 먹으래" 그랬더니 지지바(계집애)가 새벽부터 난리친다고 그렇게 말해서 너무 서글프더라구요.

그래서 집 샀을 때가 제일 기뻤던 거네요?

우리 아저씨가 처음에 집 사고 너무 좋으니까 대문을 발길로 찼어요.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발길로 찰 정도로 기뻤죠.

본인을 위해서 물건을 사본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정말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사본 거요.

냉장고. 새마을 살 때 냉장고랑 테레비를 샀어요.

냉장고 사실 때 다른 집들도 다 샀나요? 아니면 특별히 빨리 산 건가요?

냉장고를 집집마다 다 사지는 못했어요. 없는 집이 많았죠. 집전화도 처음에 우리가 먼저 놨어요. 전화 신청하고 2년 만에 나왔는데 소방서에서 연락 오면 집집마다 내가 연락해줬지요.

두 딸 뒤로 냉장고와 칼라텔레비전이 보인다.

냉장고 살 때 큰맘 먹고 샀겠어요?

냉장고보다 칼라텔레비전이 더 비쌌어요. 16인치를 샀는데 그 당시에 친정아버지가 와 있어서 아들이랑 맨날 싸웠어요. 5시 반 되면 뉴스 잠깐 나오고 만화가 나오잖아요?. 아들이 만화 보려고 드르르 돌리면 또 할아버지가 뉴스 보려고 드르르 돌리고 또 만화 보려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파리채 들고 "이놈의 새끼 또 왜 돌리냐" 매일 그러고 싸웠어요.

친정아버지가 왜 여기 와 계셨어요?

친정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언니네 집에 몇 개월 계시다가 우리 집에 와서 애들 봐준다고 와 계시다 또 한 6개월 있다 또 언니네 집에 갔다 이런 식으로 지내셨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23살 때 결혼하기 전에요. 63세에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 없는 설움을 많이 느끼셨겠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내가 막내딸이라고 엄청 애틋하게 생각했거든요.

살아오시면서 내가 이거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뭘까요? 스스로 자부심이 드는 그런 일이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 가르친 게 이제 제일로 보람있는 일이지요. 내가 일을 안 했으면 애들 셋을 대학에 못 보낼 형편이었는데 내가 일을 해서 애들 셋 다 대학에 보내고 집 사면서 진 빚도 다 갚고 한 거죠. 그때 남편 월급만 갖고는 애들 셋을 못 가르쳤어요.

많이 뿌듯하시겠어요.

졸업해도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취직하면 방 얻어줘야 되고 뒷바라지하느라고. 그래서 나는 큰 욕심 안 바래고 이제 애들 셋 다 공부시킨 것이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보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님들 마음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식들 공부시켜서 자리 잡을 때까지 뒷바라지하시는 걸 큰 보람으로 생각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니어카에 마른 오징어를 싣고 졸면서 걷고

민 봉 순(86세)

주요약력 1938년 원주 출생
1954년 잠사회사 취업
1956년 문명일과 결혼하여 속초에 정착
1957년 딸 출산. 1959년 큰아들 출산
1962년 둘째아들 출산
1967년 속초해수욕장 자리로 이사, 구멍가게 시작
1969년 막내아들 출산
1978년 현 자택 위치로 이사, 오징어덕장 운영.
2006년 남편 사망
2016년 오징어덕장 종료

면 담 자 : 김현미(시민기록가)
면담장소 : 청호동 민봉순 자택
면담일 : 2024년 8월 20일(화) / 9월 20일(금)

결혼하고 이북 아바이 따라 속초에 정착하다

어머니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원래 원주였어요. 원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19살에 이북 아바이를 얻어가지고 속초로 시집을 왔어요.

이북 아바이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우리 아바이가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면 아바이인데 아주 알몸뚱이로 내려왔어요. 고향에서 장가를 가서 안사람이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청년들 몇 명이랑 배를 타고 넘어온 거예요. 잠깐 내려 왔다가 한 일주일쯤 있으면 또 들어간다고 한 게 여태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지 올해가 18년째입니다.

원주하고 속초는 먼데 어떻게 원주에서 속초로 결혼해 오셨어요?

형부가 38사단에 훈련 갔다가 군인이었던 아바이를 만나서 중매를 서게 됐지요. 아바이가 거기서 제대를 하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있다는 인천으로 갔어요. 나는 공장에 다니고 있고 아바이가 (혼인)말을 띄워놓고 몇 달 있어도 오질 않으니 결국 엄마가 거길 찾아가서 아바이를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어요.

속초에 아바이 연고가 있었나 보네요?

거기 살다가 해먹을 게 없어서 아바이 고종사촌 동생이 속초에 있어서 이리로 왔지요. 그 사돈네 집이 오막살이였는데 그 집 요만한 웃방을 빌려줘서 둘이 거기서 얹혀살다가 누가 터를 줘가지고 하꼬방(판잣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았지요.

그 집은 어디 쯤에 있었어요?

지금 갯배 다니잖아요? 그 갯배 다니는 이쪽 청호동 쪽은 갯배머리라고

하고 시청 쪽은 개건너라고 해요. 갯배 다니는 바다 폭이 예전에는 지금보다 좁았어요. 거기에 이만큼씩 더 나간 자리, 그 갯배머리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집이 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바닷물이어요.

결혼하기 전에 공장 다니셨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공장을 다니셨어요?

회사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원주에서 잠사회사라고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을 뽑으면 번데기가 나와요. 그 실 한 20개를 매달아놓고 귀에 이렇게 착착착 감다가 끊어지면 또 잇고 그랬어요. 그 회사 다니면서 내가 잘한다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상을 받았는데 명주실로 만든 호박단저고리 한 감씩 타고 그랬어요.

젊은 시절의 민봉순님, 친언니와 함께

그때 월급은 얼마 받으셨어요?

월급은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은 안 나고 조금씩 받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래도 나이 먹었다고 월급 받아 놓으면 행주치마도 해놓고 옷도 몇 벌 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시집갈 때 적삼이나 행주치마도 몇 개씩 해 갔잖아요.

잠사회사를 얼마동안 다니셨어요?

17살에 들어가 한 2년 한 거 같아요.

우는 갓난애를 앉혀놓고 명태 미끼를 찍으니

그러면 속초 처음 오셨을 때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바이가 이북에서 양복점에 다녀서 재봉을 할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라도 가져가 벌어먹으라고 재봉틀을 주셨어요. 옛날에는 이런 데가 찢어지면 다 돈 주고 기워서 입었어요. 그 재봉틀로 옷 찢어진 거 기워주고 치맛단 떨어진 거 박아주면서 맨 처음엔 그걸로 먹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게 벌이가 안되서 할 수 없으니까 배를 탔지요.

명태 낚시함지에 미끼를 끼고 있는 아낙네(1950년대, 속초문화원 제공)

남편분이 배를 탄 건 언제부터인가요?

여기 갯배머리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2~3년 빵꾸다이[1]로 해서 먹고 살아가다 그다음부터 했어요.

아바이가 배 탈 때 어머니는 어떤 일 하셨어요?

1) 여기서는 옷의 구멍이 나거나 찢어진 곳을 기워주는 일을 말함.

아바이가 배를 타면 그냥 타는 게 아니에요. 명태잡이밴데 낚시 미끼를 찍어(끼워)가야 해요. 낚싯줄 하나에 바늘이 두 개씩 달렸는데 그 낚싯줄이 몇백 개여요. 선주가 미끼로 꽁치를 사주면 절였다 썰어서 그걸 바늘에 다 착착착 가지런히 찍어요. 두 함지[2]를 찍어서 머리에 이고 새벽에 나가 배에 실어주면 저녁 한 8시 9시쯤 명태를 잡아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명태 잡느라 엉켜있는 낚싯줄을 하나씩 풀어서 싹 다 정리해놨다가 밤새도록 다시 꽁치미깝(미끼)을 찍어요. 그때 우리 딸 갓난애를 눕혀놓으면 자꾸 울어서 포대기에다 둘둘 싸서 앉혀놓고 그렇게 일했어요.

처음 하신 일이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걸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하니 오죽하겠어요? 게다가 그때 한 배에 낚시 사공이랑 선장이랑 해서 한 5~6명이 탔는데 다 이북사람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랬지비, 저랬지비 하는데 내가 이북말을 못 알아먹어서 완전히 벙어리였댔어요.

미끼 끼우는 일 말고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남의 배를 몇 년을 타다가 우리 아바이가 술도 안 드시고 똑똑하니까 선주가 자기네 배 한 채를 아바이한테 맡겨줬어요. 내가 보름에 한 번씩 저 갯배머리에서 여기 서낭당까지 고사음식도 숱해(매우 자주) 해이고 다녔어요. 그렇게 배 임자 노릇을 했어요.

고사를 그렇게 자주 지냈어요?

정월 달 초승에는 집집마다 무당네 집 물어보느라고 나래비(줄)를 섰어요. 이북사람들은 집 들어가는 문턱에다가 뭘 달아 매놓고 돈을 벌면 거기다 갖다 놨다가 꺼내 썼어요. 미신을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아바이는 주로 명태만 잡으신거죠?

---

2) 통나무를 파거나 나무로 짜서 만든 그릇.

옛날에 여기서 명태가 말도 못하게 났어요. 저녁이면 100두름이다 200두름이다 하고, 못 잡은 사람이 50, 60두름 잡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먹으라고 한 열 마리씩 굵은 걸 가져다주면 그걸 팔아서 먹고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배 타는 이북사람들이 은행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니까 명태잡이 한 돈으로 모두 쌀을 샀어요. 쌀을 몇 가마씩 사놓고선 명태가 겨울에만 나고 봄부터 안 나니까 쌀을 보관했다가 나중에 봄에 그 쌀로 국수도 바꿔 먹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하더라구요.

명태가 안 나는 계절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겨울에만 명태가 나고 봄하고 여름에 안 나잖아요. 그러면 봄에 덴마(작은 배)라고 조그만 배를 노를 저어가지고 아야진 이런 데 가서 미역을 도둑질을 해와요. 원래 그 동네 사람만 딸 수 있잖아요. 정월 이후부터 미역이 나는데 음력 2~3월 저녁이면 밤에 가서 미역을 몰래 훔쳐다 팔아서 돈을 모아서 하꼬방을 지었어요.

해수욕장 근처로 이사해 구멍가게를 열고

속초해수욕장 근처로 이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가 몇 년도인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해수욕장 자리에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길 헐어서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30평씩 줬어요. 우리가 아마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가서 집을 지었을 거예요. 거기서 창고 짓는데 뼈가 나와가지고 문창호지로 싸서 갖다 묻어주고 이랬어요. 묘지 자리였던가 봐요. 그 곳에서 구멍가게로 그냥 먹고 살았어요.

구멍가게 하시면서부터는 남편분이 뱃일은 안 하셨어요?

그 뒤로도 배를 탔으면 돈 좀 벌겠는데 구멍가게 보고 담배가게 하느라 그냥 놀고 안 하더라구요. 그런데 구멍가게나 되나요? 맨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런 거 파는데요.

구멍가게는 한 몇 년 하셨어요?

몇 년 잘했지요. 우리 막내를 거기서 낳았는데 3학년 때 여기 내려왔어요. 우리 막내를 가게 보며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한 15년 산 것 같아요.

그 가게에서 물건을 주로 뭐 갖다 파셨어요?

옛날에 뭐 10원짜리 20원짜리 과자 그런 거지요. 그때는 도루묵 알을 자루로 사다가 삶아서 팔면 애들이 잘 사 먹었어요. 그리고 설탕으로 만드는 찍어먹기(뽑기) 그런 것도 하고 말짱 10원짜리 20원짜리 그랬어요. 쌀도 좀 했어요. 명태 미깝하다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머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웃음)

그러면 그 과자나 이런 거는 어떻게 구입을 했어요? 누가 갖다 줬나요?

장사꾼들이 배달해줬어요. 담배도 배달해 줘서 담배도 팔았는데 처음에 시작을 내가 그냥 갖다가 했는지 돈이 딸려가지고[3]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구멍가게에서 다 팔지도 않았는데 자꾸 더 줘가지고서는 돈이 딸려서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요.

오징어 덕장을 크게 하다

어머니 덕장도 하셨지요? 덕장에 대해 얘기해주세요

오징어 덕장을 아주 크게 했어요. 옛날에는 마당에다 보랑대라고 기다란 소나무를 몇 개씩 박아놓고 새끼줄을 치고 거기에 걸었어요. 저 아래 갯배 머리에 있을 때에도 잡아오는 거를 몇 두름 잡으면 그걸 때게서(가르다의 사투리) 새끼줄에다 널어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널어놨다가 비를 맞으면 이틀 만에 뻘개져서 못쓰게 돼요. 그럼 그걸 다 물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때는 내가 말릴 줄도 모르고 새끼줄 채로 끊어다가 물에다 갖다 버리곤 했어요.

---

3) 모자라서, 부족해서

여름에는 못 먹거든요.

창고 지은 다음부터는 비를 맞아서 버리는 일은 없었겠어요?

그러다 차츰 창고를 널찍하게 지어서는 안에다 연탄을 피워놓고 말렸어요. 연탄을 밑에다 넣고 선풍기로 말렸는데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오징어 기계는 언제쯤에 들여놓으셨어요?

그게 속초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연도를 모르겠네요. 우리도 몇 백 들여가지고 일찍 들여놨는데 그전까지는 창고에다가 연탄 넣고 했는데 기계 놓고부터는 전기랑 기름으로 작동하니까 많이 편해졌지요. 스위치 누르면 되고 끌 때 되면 가서 끄면 되니까요. 기계가 얼마나 좋게 나왔는지 400두름씩 넘게 걸었어요. 400두름이면 한 두름에 20마리니까 8천 마리죠. 하루에 오징어를 그렇게 걸었어요. 심지어 두 탕을 한 날도 있어요. 세 바리[4] 걸고 네 바리 걸고 하루에 두 번씩 할 때는 사람을 더 많이 써서 했지요. 그러니 잠을 잘 시간이 매일 부족했지요. 맨날 서서 앉아서 일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다고 봐야죠.

그 당시에는 몇 명이 일했어요?

사람을 얼마나 썼느냐 하면 오징어 때기는 사람 3명, 너는 사람 4명, 손질하는 사람 7명 내지 10명. 그리고 바로 앞이 할복장이라서 남자를 한 명 둬서 그 사람이 리어카로 때긴 오징어를 끌어다가 마당 저기에 부어요. 보통은 한 15~20명 정도가 일했지요.

왜 이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손질하는 게 손이 많이 가요. 긴 장대에 오징어를 끼워서 말리다가 어느 정도 마르면 오징어를 반듯하게 펴야 하는데 귀가 한쪽으로 엎어져 있어서 그걸 제껴야 돼요. 귀를 제껴놔야 제대로 마르는데 안 그러면 귀가 빨개져

4) 수산물을 세는 단위로 한 바리는 오징어 100두름이고 2천 마리이다.

서 못써요, 그리고 다리도 붙어있는 거 뜯어야 되고. 그걸 다 손으로 직접 한 마리씩 해야 하니까요. 그 연탄불을 틀어 놓고서는 그냥 들어가서 일하니 사람이 왜 안 곯았겠나 싶어요.

마른 오징어를 싣고 팔러 다니던 니어카

그 많은 오징어를 다 말리면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팔러 다니셨어요?

그전에는 조금씩 해가지고 내가 이고 가서 팔았는데 오징어를 많이 하니까 새벽에 니어카에다 싣고 갯배를 타고 건너가면 거기에 오징어를 사려는 상인들이 와요. 그럼 거기서 쭉 기다리다 팔고 오는 거지요. 빨리 가서 좋은 자리를 잡아야 빨리 팔고 올 수 있으니까 새벽 4시에 나갔어요. 그때는 건조하는 집이 100집이 넘었어요. 여기 할복장 생겼을 때엔 백 몇 명씩이나 됐어요. 나는 어떤 때는 니어카를 앞에 껀 밀고 뒤에 껀 끌고 해서 두 대씩 끌고 다녔어요. 내가 원래 기운이 세서 그랬지, 여느 사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잠을 못 자서 잠이 쏟아져서는 니어카를 끌고 가다 한참 졸며 가다 또 이랬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엄청 피곤하고 힘드셨겠어요.

갯배를 타고 건너가다 간혹 갯배줄이 끊어지기도 해요. 줄이 끊어져 배가 둥둥 떠서 저만치 가서 놀란 적도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면 일 없는데 물이 줄어들면 니어카가 턱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여자들이 팔러 댕기니 그렇게 힘도 못 쓰는데도 여자들이 서로

밀어주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오징어덕장을 하며 뒷배[5] 일 하느라 관절이 다 닳았어요

오징어만 작업하셨나요?

오징어가 많았어요. 그때 명태가 안 났거든요. 옛날에 꽁치도 많이 났는데 판장에 가면 널린 게 꽁치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나요. 오징어도 말리고 명태도 다른 쪽 창고에다 말렸어요. 노가리도 말리고 온갖 걸 다 했어요.

덕장을 하시면서 배에서 오징어가 나오면 그걸 사서 걸은 건가요?

오징어가 날 적에는 여기서 사서 했는데 그때는 조금씩 했어요. 창고 짓고 기계 들이면서 크게 하니까 여기서 오징어가 안 나면 삼척, 구룡포, 울진 이런 데서 나니까 우리 아바이가 새벽에 거길 가서 아침에 나오는 걸 사서 차에 실려 보내요. 그럼 여기에 10시나 12시 안에 도착해서 그걸 작업했는데 또 거기마저 안 나면 부산 가서 원양어선에서 오징어를 한 차씩 사서 보내서 4명이 똑같이 나눠서 널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도 걸었어요.

오징어가 도착하면 어머니도 할복부터 직접 다 하셨어요?

나는 뒷배 보느라고 못했지요. 일할 사람들을 다 짜놨다가 전화해서 언제 오라고 하면 새벽에도 오고, 와서 때기는 사람 때기고 너는 사람 또 오라 하면 와서 널고, 떼놓고 손질하는 사람 오라 하면 손질도 하고 그랬지요. 나는 일하는 사람들 밥 해주는데 한 열댓 명씩, 한 20여 명씩 해 먹였어요. 밥을 해 먹이는데 저 창고가 사람이 얼마나 북적거리는지 나중에 한 번 들어가 봐요. 엄청 넓어요.

그러면 덕장 관리 전체를 어머니가 다 하신 건가요?

혼자 다 하다시피 했어요. 아바이도 했지만 우리 아바이는 밤으로 자고

5) 겉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보살펴 주는 일.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불이까[6]하는 연탄불을 봐야 돼요. 잘 마르나 오징어가 떨어졌나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 잠을 못 잤어요. 연탄을 몇 개씩 틀어놨으니 말이에요. 여느 사람들은 연탄 안 하고 기계로만 했는데 우리는 기계를 하면서 연탄도 피웠어요.

덕장하는 일은 여자들 일이 더 많네요?

남자들은 없어요. 맨 여자들 일이지요. 남자들은 할복장에서 오징어를 끌어오는 사람만 남자였어요. 남자도 간혹 손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손질하는 건 대부분 여자들이 해요. 그것도 엄청 힘들어요. 파는 것도 내가 다 하고 또 여자들이 손질을 해놓으면 덜 말랐으니 다시 또 널어야 마르잖아요. 다시 너는 건 내가 다 했는데 지금 이 어깨, 등도 나가가지고 시술했어요. 고관절도 나갔지 양쪽 다리 다 닳아가지고, 니어카를 그렇게 끌고 다녔으니 왜 안 닳겠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중환자예요.

창고에서 축잡는 걸 설명 중인 민봉순님

일하는 사람들 일당은 어떻게 주셨어요?

일하는 사람은 이제 한 두름에 얼마씩, 자기 하는 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10두름 하면 10두름 값 받고 그랬어요. 한 두름이면 몇백 원인데 300원, 500원 이랬네요. 하여튼 축 잡는 것도 500원이던 게 지금 600원이고 손질하는 게 800원, 이렇네요.

6) 이까는 오징어의 일본말인데 연탄불을 피워놓고 오징어를 걸어 말리는 작업을 불이까라 한다.

축 잡는 게 뭐예요? 하나로 묶는 건가요?

다 마른 오징어 10마리를 모양을 예쁘게 잡아서 포장하는 거예요. 축 잡는 게 여자들이 한 5만 원 6만 원씩 벌었어요. 그때는 300원 했나 500원 했나 모르겠는데 지금은 600원씩 해요. 20마리가 한 두름인데 한 두름 사다가 10마리씩 축 잡으면 이 10마리가 옛날 한 두름 값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만큼 많이 비싸졌어요.

덕장 하시면서 일도 많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셨어요?

저희들 끼리 컸지요. 오죽하면 우리 딸을 이불에다 싸서 앉혀 놨을까요? 사람들이 와서 갓난아이를 그렇게 앉혀놔서 저 애기 나중에 허리 못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막내가 감기 걸리면 옛날에 마이신 있잖아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이신 하나 사다가 4번을 갈라서 먹이고 그랬어요. 다 그렇게 컸지요.

이 덕장일 하신 분들이 보통 어깨 병이 많으신가요? 주로 어디가 많이 아프세요?

어깨 허리 다리 다 수술하고 허리가 아파서 못 걷고 나도 관절이 다 닳아가지고 지금 다 그래요. 청호동 사람들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보고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까 손질도 앉아서 이렇게 늘리고 하니까 다 힘들어요.

오징어덕장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어떤 일이에요?

힘들었던 일은 그 오징어일 자체가 힘들었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뜯겼어요. 우리 큰아들 장가가서 그때 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개건너 사장이 돈이 딸린다고(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 아바이가 떡하니 꿔줬어요. 저 아래 오징어를 사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매일 빼다가 하는데 그때는 창고 갖고 있는 사장이 사줬어요. 우리 아바이가 그 사장을 통해서 오징어를 샀는데 그 사장이 천만 원까지 몽땅 가져가고 오징어 몇백 장 있던 것도 부도가 나니까 다 넘어가서 그때 우리가 아주 알거지 됐어요. 완전 알몸뚱이였어요. 그래

서 내가 우리 아바이 보고 그랬어요 "아바이요, 우리가 병 나가지고 돈 썼거니 하고 (떼인 돈) 생각지 말고 우리가 벌어가지고 살자"고요. 그만 그놈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리들은 또 그렇잖아요? 애들 시집 장가 보내고 살잖아요. 그럼요, 아주 그때 제일 막막했죠.

명절엔 안방에 누워 울던 아바이

아바이가 고향을 많이 그리워하셨어요?

북청군의 신창면이 고향인데 명절 때면 저 아랫목에 누워서 고향 생각하면서 울고 그랬어요. 제사 지내고 나면 이 안방에 누워가지고 꼼짝달싹도 안 하고 고향 생각하고 해마다 그랬어요. 술을 안 자시니까 어디 나가 다니지도 않구요. 그러다 여기 집 짓고서는 얼마 안 되가지고 아바이 아버지가 안방에 딱 누웠더라잖아요. 아버지를 꿈에 봤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청호동 이북아바이들. 왼쪽에서 두번째가 민봉순님 남편

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어디 협회 회장을 하셨어요?

여기 건조협회 회장노릇을 했어요. 이 오징어 똥(내장)도 그전에는 도라무(드럼통)로 하나에 5천 원 하는 걸 우리 아바이가 들어가가지고 만 원씩 해서 돈을 많이 뽈궈(늘려) 놨었어요. 오징어 똥에서 화장품도 나오고 약도 나온다고 그 회사들이 아주 그걸 가져가지 못해 난리였어요. 그 똥값을 올려받아서 우리 아바이 있을 때 한 4억이 됐었어요. 예전에는 오징어 손질하면서 그걸 다 버렸는데 똥값을 아주 비싸게 받았지요.

아버님이 사업 수완이 있으셨나 봐요.

이북 사람인데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머리가 아주 많이 똑똑해서 우리 이 동네 맨(전부) 배 타고 있는 사람들 데리고 우리 아바이가 유럽 미국 대만 동남아 해외여행을 9박10일을 다 댕겼어요. 지금도 얘기해요, "너희 아바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 다 댕겼다"고요. 또 우리 아바이가 원래 남을 이렇게 먹이는 걸 좋아해요. 우리 아바이 생일 차리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 온 동네 사람 다 불러내요. 남자고 여자고 다 사다 먹여요. 그렇게 사람들 뭘 먹이는 걸 좋아했어요.

아버님이 청호동 사는 고향 사람들도 앞장서서 챙기셨을 거 같아요.

우리 아바이가 또 나서서 신창면 산을 사놨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바이가 신창사람, 고향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달이 천 원씩 걷어서 산을 사놨는데 지금 남편이 거기 묻혀있어요. 나도 거기 갈 판이어요. 우리 아바이가 자전거 타고 댕기면서 걷어가지고 공동으로 산을 산 게 지금 아주 커요.

공동산이 어디에요?

저 여기 비행장 있는데 석교리에 있어요. 비행장에 가면 그 산이 낮에 다 보여요. 우리가 죽을 때 고향 못 가면 같이 같은 데 묻히자 이러고 산 거예

요. 아마 거기 묻힌 사람이 한 30, 40명 될 거예요. 우리 아바이가 산을 샀기 때문에 그 산 명의가 지금 내 앞으로 되어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신창마을분들의 공동묘지네요?

예, 그렇지요. 우리 아바이가 아주 큰 돌을 갖다 입구에도 하고 이쪽에 들어가는 길 입구에다도 큰 돌에 신창 그거를 써놓고 또 산 올라가는데도 돌 갖다 놓고 그랬어요.

아바이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올해가 18년째여요. 우리 아바이도 사람들이 말짱 100살까지 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폐암에 걸려서 칠십아홉에 돌아가셨어요. 말짱(다들) 아까운 사람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고생을 했어도 계모임이 있어서 재밌었어

계모임이 한 5개쯤 있었다 그랬는데 계는 무슨 계인가요?

그냥 형제계지요. 지금은 2만 원씩 걷어가지고 모아서 요새는 재밌는 거,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요. 또 어떤 계는 (매달) 15일 전에 3만 원씩 걷어가지고서 2년 있다가 50만 원씩 이렇게 농겄나(나눴나)? 그렇게 목돈 타서 쓰고 뭐 살 거 사고 재밌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계에서 내가 제일 좌장이어

계모임에서 간 여행. 왼쪽이 민봉순님

요, 아이고.

계 모은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어요?

계 모은 지가 우리 애들 몇 살 때나? 저 아래 계는 계원들이 다 죽고 그래서 작년 시월에 깼는데 그 계는 50년도 넘었어요.

그 계는 여자들 모임이어요? 한 몇 명쯤 됐어요?

맨(전부) 여자들이고 언니 동생하며 한 10명 내지 15명 이런 정도. 그것도 또 아구(아귀)가 차면 나쁘다고 해서 계원을 11명 13명 15명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여기 작업하러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계모임 같이하는 분이 있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안 하는 사람끼리도 하고 뭐 그랬죠.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은 말짱(전부) 70대라서 그런 애들하고는 우리가 같이 안 하고 75세 위로 80대 그 정도로 했어요.

계모임에서 여행도 좀 많이 가셨어요?

많이 다녔어요. 내가 1년에 네 번도 댕긴 적도 있고, 외국도 갔다 오고 그랬어요. 이 계 해서 가고 저 계 해서 가고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나는 너무 많이 댕겨서 관광 못 다녔다 소리 못해요.

계모임에서 즐거운 한 때

계모임 초기에는 주로 어디로 많이 놀러 가셨어요?

남한 일주를 다 댕겼어요. 안 가본 데가 없고 몇 번씩 다녔어요. 청호동 사람들만큼 놀러 다닌 사람들이 없어요. 옛날에 '이탁관(사람이름)'이 우리 아바이 고향 아우뻘 되는 사람인데 관광 기사요. 우리 아바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밀어줬는지. 근데 이 사람이 투전을 해가지고 돈 내기를 했어요. 우리 아바이가 "요새도 손금 보니?" 이러면 "안 봅니다" 이러곤 했어요. 지금 개 건너 사는 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 사람도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이 돈을 많이 만지니까 계도 많이 하고 놀러도 많이 다녔네요. 잘 쓰고 잘 놀고?

청호동 사람들이 잘 쓰고 잘 놀고 통도 커요. 지금 젊은 애들도 놀러 가는 게 기사한테 팁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른대요. 지금 젊은 애들 70대들도 그렇게 돈을 많이 써요.

옛날에는 이러고 살았어요

여기 처음 와서 사실 때 물은 어떻게 구했어요, 식수?

말도 말아요. 저 갯배머리 살 때는 갯배를 타고 지금 시청 뒤에 그 꼬대(꼭대기)에 두부 장사하는 아바이집이 있었어요. 거기 물동우를 이고 올라가서 몰래 길러다 밥해 먹었어요. 또 그때는 우리 집 바로 앞이 바다였는데 바닷물이 맑았어요. 물이 맑으니 애들 키울 때 애가 똥 싸면 바닷물에다 기저귀를 흔들어 씻고 집에 와서 뜨물에다 담갔다 삶아서 쓰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뭐 기저귀감이나 제대로 있었어요? 기저귀도 밀가루 푸대, 그게 광목이잖아요. 그걸 사서 삶아서 애들한테 그걸 채웠어요.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화장실도 없어서 몇 집 건너서 있는 공동화장실에 아침부터 애 업고 가서 나라비(줄) 섰다가 볼 일 보고 이랬어요.

그럼 기저귀는 그렇게 빨고 다른 빨래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빨래는 모아놨다가 큰길 건너가면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그 너머 거기

를 온정리라 그래요. 거기가 뜨신 물이 나와요. 온천물이 나오는 빨래터가 있는데 갯배머리에서 빨래를 이고 가서 빨래하는데 그냥 오면 젖은 빨래가 무거우니까 조금이라도 말리려고 빨래하는 대로 널었다가, 올 때 걷어가지고 오고 그랬죠. 그리고는 저쪽(구멍가게) 집에서는 펌프가 있어서, 이 집도 펌프를 놓고 썼어요. 수도 오기 전까지 펌프 놓고 썼어요.

아기들 낳을 때 어디서 낳으셨어요?

우리 첫째 딸은 원주 친정엄마한테 가서 낳았고 아들 낳을 때는 엄마가 온다고 했는데 애가 미리 나와서 가게를 보다가 혼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두 시쯤이었을 거예요. 애를 혼자 낳고는 여기 앞집 아줌마가 와서 태를 갈라줘서 누워있었어요. 우리 아바이가 그때 '조양호'라는 명태배를 가지고 선장으로 댕겼어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해가 거의 떨어지자마자 들어왔는가 봐요. 내가 누워있으니까 아바이가 "왜 대낮에 누웠는가"하고 발로 툭 치잖아요. 그다음에는 친정어머니가 와서 산파를 다 한 달씩 해줘서 나는 이 아픈 데가 없어요.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 해서 아파서들 난리인데 나는 엄마가 팔도 내려가면 덮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셨어요. 한 달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딸을 아주 그냥 귀하게 키우셨네요.

자식밖에 몰랐어요. 우리가 원래 삼형제인데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작은마누라를 얻어서 작은엄마가 두 남매를 낳고 딸은 작은엄마가 데려가고 아들은 우리 엄마가 길렀어요. 6.25전쟁 때 작은어머니가 딸을 데려갔는데 가가 그때 아마 돌 지났던가 봐요. 6.25전쟁 나고 그다음 해에 피난을 또 갔는데 그때는 내가 저 동생 때문에 작은엄마를 따라갔어요. 작은엄마를 따라가서는 경상북도 청도인지 거기에 내가 안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 죽었다고 막 울고 이랬대요.

경상북도 청도까지 내려가셨구나.

피난을 거기까지 가서 개울 바닥에서 소나무 나뭇가지 꺾어다 움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밥을 얻어다 먹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가 딸만 셋 데리고서는 왜 이렇게 멀리 가는지. 대전까지 가서는 우리 언니하고 동생은 기차를 탔는데 보따리를 인 엄마하고 나하고 기차를 못 타가지고 막 울고 난리 치다가 간신히 탔어요. 그때 정말 헤어질 뻔했어요. 625 피란 때 그 난릴 겪었어요.

아휴, 고생이 많으셨네요. 자녀들 키우면서 애기들 돌잔치는 다 해줬어요?

그럼요. 돌잔치 해서 옷 입혀가지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뭘 집었는지 기억나세요?

그건 기억 안 나고 저 꼭대기 살 때인데, 우리 막내를 옷을 다 입혀가지고 돌잔치 하는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아가 놀랐는지 갑자기 뻣뻣하잖아요. 애들 왜 바람기가 있어서 막 저거 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나? 정끼(경기)를 일으켰어요. 그리 뻣뻣해진 아를 안고 침 누는 할머니한테 내려가서 침을 맞고 괜찮아졌었어요. 돌날에.

명절 때는 애기들 설빔이랑, 추석빔 이런 거 다 해주셨어요?

뭐 어떨 때는 새로 사다 주고 그랬지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고생 안 했어요. 어떤 집들은 때를 못해가지고 밥을 못 먹였어요. 우리 가게 앞집도 애들이 딸 둘에다가 아들 셋인데 영감이 배 타고 그랬는데 아마 돈이 안 들어왔겠지요. 우리가 가게 볼 적에 그 집 에미나이(여자아이)가 와서 밥을 못 먹었다고 그러면 내가 보리밥이라도 해서 주고 이랬어요. 그 집들은 아주 맨 밀가루로 살았어요. 우리는 보리밥이라도 애들 배는 안 곯렸어요.

애들 간식거리 같은 거 뭐 해주셨어요?

간식은 뭘 해줘요. 가게를 보니까는 우리 막내는 과자를 얼마나 훔쳐다 먹는지.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도루메기 알 삶은 거 매번 가져다가 막 먹었어요. 옛날에 그러고 살았어요.

친정어머니 환갑 때 설악산에서 찍은 사진

가족끼리 설악산을 가보신 적은 있어요?

가족끼리는 못 가고 우리 엄마 환갑 때 설악산 가서 그 절 앞에서 사진 찍은 게 저기 있어요. 우리 엄마가 그다음 해에 돌아가셨어요.

시장이 3구, 5구 시장이 있고 여기 6구 시장이 있었는데요.

6구는 멀고 개건너 갯배 타고 건너가면 3구시장(현 중앙시장) 거기 댕겼지요.

주로 그러면 옷이나 생필품 이런 건 다 3구시장에서?

그런 건 3구시장 가서 다 사고, 옛날에는 부월리 촌사람들이 개건너 쪽 난전에서 채소 이런 거 해가지고 와서 파는데 거기서 사고 아침이면 고기 장

사 아마이들이 개건너가 고기를 받아다가 쭉 놓고 고기도 이것저것도 팔면 거기서 생선을 사 먹고 했지요.

어머니 그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기뻤던 일이 다른 게 뭐 있어요. 자식들 다 잘 커서 결혼하고 손주들 낳은 거 그거지요.

후회되는 건 없으세요?

살면서 후회도 없지요 뭐. 맨날 고생하고 살았는데 후회할 새가 어딨겠어요.

내가 살면서 이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바이가 텔레비고 전축 이런 것도 누구네가 좋은 거 있다면 그걸 딱 사야 되요. 성질이 그랬었나 봐요. 아바이가 60 몇 살 때 운전을 배웠는데 차를 4대나 바꿨다니까요. 얼마나 깨끄라운지요. 아바이가 만날 그래가지고 돈 좀 들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맞춰가며 살았어요. 나는 더펄인[7]데 우리 아바이는 아주 꼼꼼하고 잘났어요.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그저 아바이를 잘 따르고 산 거지요.

그래도 어머니처럼 여유가 있으신 분이 옆에서 계셨으니까 아버님이 또 잘 해오지 않았을까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7) 성미가 침착하지 못하고 덜렁거리는 사람

남편이 인정한대요, 내가 일한 공로를요

안 만 근(81세)

주요약력 1943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서림리 출생
1966년 남편 오영수와 결혼으로 청호동 정착
1968년 청호동에서 첫째 아들 출산
1969년 오징어 할복일 시작
1971년 청호동에서 둘째 아들 출산
2011년 남편 사망

면 담 자 : 최문경(시민기록가)
면담장소 : 청호동 안만근 자택
면담일 : 2024년 8월 22일(목) / 9월 25일(수)

결혼해 아바이마을에 정착하다

어머니, 고향과 가족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양군 서면 서림리가 제 고향이에요. 4남매 중 막내였는데 위로 두 오빠는 돌아가셨고, 언니가 양양 조산리에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제가 일곱 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워주셨는데 남의 손 안 타고 단정하게 잘 길러주셨어요.

그럼 결혼하면서 여기에 오셨나요?

스물세 살에 양양에서 속초로 시집을 왔어요. 남편은 이북 피난민이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중신 할머니 통해 만났는데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어요. 중신 할머니가 시집가면 집도 있고 형제도 많지 않다고 했어요. 시누이 하나, 시동생 하나라고 했는데 와서 보니 시동생 둘에 시누이가 넷이에요. 7남매의 장남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북에서 돌아가셨고 홀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마음은 딱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아버지 때문이예요. 시골에서 '홀애비 딸이 시집 못 살고 쫓겨 왔다'는 이 말이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아버지한테 제 결혼으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시집보내려고 큰오빠가 나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 결혼식을 하는데 전통혼례상 차려 놓고 서로 맞절하는 예식도 없고, 잔치도 없었어요. 그냥 혼례상 차려 놓고 사진 한 장 찍은 게 다예요. 큰오빠가 너무 억울해 "이런 법이 어딨냐"며 울고 가셨어요.

혼례식 때 안만근님

그 집이 지금 이 집인가요?

이 집은 두 번째 집이에요. 우리 첫애를 낳고 월남 전쟁에 파병을 간 시동생이 전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원호청에서 대부받아 지금 이 자리에 조그맣게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15년쯤 살다 이 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지을 때 돈이 많이 모자라서 처음 설계했을 때보다 많이 부족하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지었는데도 지어놓고 나니 괜찮아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여태까지 왔네요.

한 두름 스무 마리 할복하면 오 원

결혼하고 바로 일을 하셨어요?

처음엔 일을 할 줄 몰라 2-3년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결혼했을 때 남편이 목선 타고 시동생들과 미역 일을 했는데 살다 보니 남편 수입만으로 안 되겠더라구요. 4-5년 지났을 때부터 오징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징어일 중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오징어 할복을 했어요. 처음엔 오징어를 어떻게 때길[1] 줄 몰라 오징어 등에다 대고 거꾸로 때기기도 했어요. (웃음)

할복 작업은 어디서 하셨어요?

예전에는 지금 있는 이곳이 다 갯가였는데 거기에 산판다리[2]가 있었어요. 산판다리에 배를 대고 오징어를 산판다리 위에 쏟아 그 자리에서 바로 할복을 했어요. 할복한 오징어를 갯가 물에서 씻어 놓으면 오징어를 산 덕장 주인들이 가져갔어요. 오징어 할복장이 지어진 후엔 할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여기를 매립해 육지가 되었지만 예전엔 다 물이었어요.

당시 오징어 할복비는 얼마를 받으셨어요?

한 두름 20마리에 오 원 받았어요. 그 오 원 벌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 정해진 양 없이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몇 원 벌면 그것으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오징어 할복 외에 손질은 안하셨어요?

손질은 안 하고 축 잡는 걸 했어요. 오징어 할복하고 건조해서 손질 끝나면 가서 축을 잡아줬어요. 할복과 축 잡는 노임을 따로 받았어요. 오

1950년대 오징어를 실은 배가 정박했던 산판다리 (속초문화원 제공)

1) 가르다의 사투리

2) 배를 댈 수 있도록 나무 널빤지를 이어 붙여 길게 연결해 놓은 다리

징어 일은 여러 사람을 벌어먹이는 일이에요.

노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덕장을 운영해 보시지 그랬어요?

덕장을 운영하려면 남자들 일이 많은데 우리 아저씨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밥 먹다가도 오징어 때기러 오라면 가야 하고, 공장도 그랬구요.

칠십 여덟까지 공장 노동자로

꽁치 통조림 공장이었던 백일산업터 (속초문화원 제공, 2022년)

공장이라면 어떤 일을 하는 공장이었어요?

청호동에 꽁치 공장이 있었어요. 꽁치 간스메[3]공장이었는데 꽁치를 때기고 토막을 내면 소금에 절여 간스메를 만드는 거예요. 꽁치 일은 4월에서 한, 두 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오래하지 않았어요.

3) 통조림의 일본어

공장에서 임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일당으로 받았어요. 일당이 얼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그날 받아서 생활했어요.

꽁치 공장 말고 다른 공장도 다니셨어요?

게 공장하고 노가리 공장을 다녔어요. 노가리 공장을 가장 오래 다녔는데 14년을 다녔어요. 고성에 대순진리회 쪽으로 가다 보면 한일건업이 있는데 그 공장에 다녔어요.

고성은 거리가 좀 먼데 왜 그리로 옮기셨어요?

오징어 일은 한번 할 땐 많이 버는데 매일 있는 일이 아니니까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작은애가 대학 들어가니 돈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명태 때기는 걸 배워 노가리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으니 좀 나아졌어요.

노가리 공장에서는 월급으로 받으셨어요?

네. 노가리 때기는 걸 잘하는 사람은 많이 벌었어요. 저는 잘 못 때겨요.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이 벌고 느린 사람은 적게 버는 거죠. 그래도 매월 많을 때는 백 칠, 팔십 만원, 적을 때는 백사십만 원 정도 되니까 살면서 저축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보다 더 많이 버셨겠네요.

남편은 배 못 나가는 날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꾸준히 따지면 내 수입이 더 낫죠.

공장에서 일할 때 힘들진 않으셨어요?

크게 힘든 건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새벽 4시에 공장 봉고차가 와서 태우고 가는데 커브 틀다 사고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응급치료

정도에서 끝났는데 차를 뒤에서 받아 맨 뒤에 앉은 저만 크게 다쳤어요. 코뼈도 부러지고, 어깨도 다치고, 갈빗대도 나가고 해서 강릉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두 달, 속초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와 두세 달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비는 회사에서 냈고, 1년 정도 쉬었어요.

남편과 안만근님

큰 사고였는데 후유증은 없으세요?

사고 이후 차를 탈 때 절대 뒤에 앉지 않아요. 몸도 사고 이전만 못하죠.

그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다음에는 양양농공단지 안에 있는 홍게 공장을 다녔는데 공장에서 출퇴근 차량을 보내줬어요. 홍게는 공정이 많은데 먼저 게 크기를 선별하면 게 몸통을 탈각[4]하고, 게살을 빼내요. 거기도 임금을 월급으로 줬어요. 그때는 8시간 하면 백 사, 오십 만원이고, 야근까지 하면 백 칠, 팔십 만원 되었어요.

일을 참 많이 하셨네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거 다했어요. 칠십 칠, 팔 세 되니까 일하는 게 싫어서 스스로 나왔어요. 칠십 여덟에 퇴직하면서 퇴직금도 받았어요. 계속 일해 오면서 차곡차곡 쌓인 돈이니 받을 땐 액수도 크고 뿌듯했지요.

4) 게 껍질을 분리하는 과정

남편을 이해하니까 견뎠던 거죠

남편은 어머니 일한 걸 어떻게 얘기하세요?

내가 "나는 죽으면 할 말이 하나도 없다" 했더니 남편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난 해 놓은 게 하나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애들을 크게 공부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별로 한 게 없으니까"라고 말하니 자기가 인정한대요. 내 일한 공로를요.

남편 고향은 어디세요?

함경북도 원산 여도섬이래요. 중학교 다니다 열다섯 살 때 전쟁이 나서 피난을 왔거든요. 시아버님이 3대 독자셨는데 여도섬에서 어장과 땅이 꽤 많았다고 했어요.

피난 내려와 부산에서
남편이 일했던 인쇄소

남편이 피난을 왔을 때 처음엔 어디에서 사셨어요?

처음엔 부산에서 살았는데 그 때 남편이 인쇄소에 다녔어요. 돈이 안 되니까 돈벌이를 찾아 가족이 모두 이주해 아바이마을에 정착한 거죠.

남편은 어떤 분이셨어요?

술을 안 먹으면 사람이 말이 없고 순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술주정이 보통 아니에요. 아이들과 시어머니는 벌써 도망가고 저만 집에 남아 술주정을 받는 거죠. 나는 도망가봤자 온 동네 다니면서 찾기 때문에 집에서 견디는 게 나아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니까 견뎠던 거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일하러 갔다 집에 오면 밥도 해 놓고, 술도 예전보다 덜 마시고 그랬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둘이에요. 첫째가 68년생이고, 둘째가 세 살 아래에요. 첫째는 저

와 살며 현장 일을 하고 있어요. 둘째는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어요. 막내딸이 있었는데 여섯 살 때 물놀이 하다 죽었어요. 말도 잘하고 참 밝은 아이였어요. 당시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인기가 있을 때였어요. 어느 날은 "엄마, 아빠 닮은 사람이 텔레비전에서 나왔다"하는 거예요. '이주일'을 말하는 것을 알고 한참 웃은 기억이 있어요. 나이 들고 보니 딸이 살아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싶어요.

딸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남편은 아이들과 잘 지내셨나요?

성격이 괴팍스러워서 아이들이 아버지 곁에 잘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 좋을 텐데 안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일하러 갈 때 아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키워주셨어요. 밥해 놓고 나가면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챙겨주는 거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잘 돌봐주셨어요. 어머니께 서운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손이 귀한 집에 아들을 낳아주었으면 돌잔치를 해 줄 법도 한데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첫째, 둘째 데리고 사진관에 가서 찍어준 게 다예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았겠어요.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큰소리 난 적은 없어요. 시댁 식구 모두 하고도요. 이북사람들이라 말이 세서 그렇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시집와서 시어머니께 시댁에서 잘해 먹었던 음식이며 집안일 등을 배우고 싶었는데 일절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명태를 때려 창란을 추린 후 어떻게 창란을 절이는지 보고 배워야 하는데 눈치껏 스스로 알아서 하느라 고생을 좀 했죠. 이북 음식 중에 명태순대, 오징어순대, 가자미식해 등도 이웃집에서는 겨울에 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아쉽긴 해요.

나는 어디든 해외여행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제였나요?

살면서 기뻤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꼽으라면 아이들 대학 들어갔을 때, 두 아들 군대 가서 무탈하게 마치고 제대했을 때, 작은아들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왔다 갔어요. 세 남매 낳고 사는데 손주들 보니까 기쁘더라구요. 그래도 제 삶에 여유가 생겼나 봐요. 사실, 남편이 십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요 몇 년이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시절이에요.

가장 슬펐던 때는요?

그건 말도 못하게 많죠. 그래도 속아서 결혼했을 때가 가장 슬펐죠.

동네사람들과 의상대 나들이.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가 안만근님

어머니가 고생하며 번 돈으로 자신에게 한 것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어떤 거예요?

딱 한 가지 있어요. 게 공장에서 퇴직금을 탔잖아요. 그 퇴직금으로 임플란트를 했어요. 비용이 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퇴직금까지 보태니 딱 맞출 수 있었어요.

식사는 잘 하시겠네요?

씹는 게 편안하니 사는 게 편안해요. 없어서 못 먹지요.(웃음) 못 씹고 못 먹는 사람 보니 치아 해 넣길 잘했다 싶어요. 사실 7, 8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줌마는 기침하면 사람들이 곁에 안 가"라고요. 너무 말라서 폐병 환자로 보였던 거죠. 그때는 아주 말랐는데 차츰 회복해서 지금은 살도 오르고 몸도 마음도 편해요.

그럼 앞으로 꼭 해 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동네 계모임이나 행사로 국내 여행은 몇 번 다녀왔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 해외여행을 못 간 거죠. 어디든 해외여행 한번 해 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쭐께요. 어머니께 일은 어떤 의미세요?

노가리 공장 다니면서 자식들 가르쳤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돈 벌어 살잖아요. 작은아이는 대학까지 가르쳐서 인도네시아 가서 잘살고 있고요. 집 장만하고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으니 그게 다 일한 보람이죠.

어머니께서 해 보고 싶은 한 가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같이 바라게 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면담에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소감

몇 년 전 고향에 돌아와 텃밭에 토종 농사를 지으며 고양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혹독한 시대를 겪어온 부모님 세대의 삶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 이번 구술채록사업에 함께 했다.

- 김현미(시민기록가, 1970년생)

삶의 전투에서 승리한 여전사들

속초문화원에서 아바이마을 어머니들의 일과 생활에 관한 구술채록사업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청호동에 사는 어머니 두 분을 찾아가 두세 번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70-80대의 어머니들은 결혼하면서 청호동에 정착한 분들이 대부분인데 오징어와 명태, 꽁치 등 수산업이 활황을 이루면서 어머니들은 조업해 온 수산물들을 할복하고 건조, 손질해서 판매하는 일에 나서게 되었다. 특히 오징어를 건조하는 일은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오징어가 마르는 정도에 따라 수시로 나가 일해야 해서 공통으로 하신 말씀이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다.

잠도 못 자고 일을 하면서 자녀 양육과 살림까지 해야 했던 어머니들은 내 힘으로 자식들 잘 키우고 내 집 마련한 것이라 이제는 그 고생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계셨다. 어머니들을 만나면서 오징어로 대표되는 수산업의 활황과 속초의 발전은 청호동에서 수산업에 종사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치열한 노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분들이 살아오신 과정은 마치 치열한 전장에서 삶과의 전투를 치르는 모습 같았고 인터뷰하면서 뿌듯해하시는 모습은 승리한 여전사의 모습이었다. 이번 구술채록사업은 이 어머니들이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주체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였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중요한 일에 참여했다는 보람의 시간이었다.

인터뷰 소감

굴곡진 인생이 담긴 사람들의 사는 얘기 듣는 것을 좋아한다. 몇 년 전, 모친에게 한국전쟁 전후 첨예하게 대립한 접경지역 안에서도 일상을 살아낸 얘기를 듣고서 구술 기록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최문경(시민기록가, 1968년생)

청호동에 정착한 여성들, 집안과 마을의 울타리가 되다

남편과의 결혼으로 청호동에 정착한 어머니들은 "먹고 살기 위해 오징어 일을 배웠다"고 했다. 서툴고 어설펐던 손은 굵은 손마디와 굳은살이 박인 거친 손이자 능숙하고 빠른 손으로 변화해 갔다. 그 변화의 굽이굽이는 애닯고 고되었지만 내 아이들과 집안을 위한 책임감으로 놓을 수 없었던 일은 삶을 지속하는 힘이자 보람이었다.

평생 3시간 이상을 자 본 적 없는 박경훈 어머니와 14년간 노가리 공장 장기근속자로 살아온 안만근 어머니의 구술을 통해 들은 아바이마을 여성들의 삶은 속초시 수산업의 활성화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속초문화원에서 처음 시도하는 '아바이마을 거주 여성의 직업과 생활사' 작업을 통해 지역 문헌이나 자료에 드러나지 않았던, 아바이마을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이 녹아 있는 일의 역사가 수면 위로 올라오길 바란다.

이 시간을 마련해준 속초문화원과 감수자로 함께하며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준 김영미 교수님께 감사를 전한다.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의 당당함과 자부심으로 인고의 세월을 건너온 아바이마을 어머니들께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편집후기

향토사안내서 시즌 2를 시작하며-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류은숙**

지난 3년 동안 속초문화원은 '속초향토사안내서'로 초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안내서, 중등 교사를 위한 속초향토사안내서, 속초시민들을 위한 향토사안내서 등을 발간해왔습니다.

'속초' 지역의 유래부터 시작하여 행정구역과 삶 속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속초의 역사와 문화재, 자연 · 인문 환경과 식생 등의 내용을 구성하여 과거와 현재의 우리 지역 모습을 충실히 담아내었습니다.

시즌 1의 향토사안내서가 속초 지역에 대한 개론을 정리했다면, 2024년부터 진행하는 향토사안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속초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다 가까이 들려주려고 합니다.

2024년의 주제는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입니다.

2023년 청호동 오징어할복장을 문화공간으로 새로 조성하여 개관식을 하는 행사에 갔다가 한 어머니의 말씀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아고,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일하고 놀고 … 그때가 재미졌지"

힘겨웠던 시절이라고 어디 고단한 이야기만 있었겠나요.

정과 그리움이 담뿍 담긴 그 말씀과 환한 웃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몇 몇 이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머니들처럼 평범한, 그러나 한 명 한 명 모두 빛나는 삶으로 가득 찬 시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역사와 지역을 보다 제대로 알아보려 합니다. 그 한 명 한 명의 삶이 모여 우리의 역사를 이루니, 우리가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을 살아낸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들로부터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알지만, 또 알지 못한 이야기들을 펼쳐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속초의 과거와 현재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속초 아바이마을 거주 여성의 직업과 생활사를 시작으로 향토사안내서 시즌2는 다양한 속초 사람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담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보상없이 이 작업에 기꺼이 참여해주신 '고향의 정취를 담은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픈' 20대 청년 박은우 님과 웹디자이너 김현주 님, 그리고 우연히 시작된 작은 인연으로 교육부터 감수까지 도와주신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김영미교수님과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향토사 안내서

오징어할복장과 아마이

발행처 / 속초문화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 632-1231 / 전송 (033) 632-1241
전자우편 sc2439@kccf.or.kr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편집인 / 류은숙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구술인터뷰 · 글
최문경 시민기록가
김현미 시민기록가

사진 / 고향의 청취를 담은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픈 20대 청년 박은우

삽화 / 웹디자이너 김현주

캘리그라피 / 우담 권정아

구술지도 · 내용감수 / 김영미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기획 · 진행 / 이두범 속초문화원 문화사업팀 주임

디자인 · 제작 / 씨엔씨디자인

발행일 / 2024. 12. 31.

[비매품]
ISBN 979-11-94405-04-7

◇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원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전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